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깨닫는 사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꿈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잘 살면 칠십이고 건강하면 팔십이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유수와 같지 않습니까?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하용조